사람과 문화로 채우는 '사람의 거리'

전주시, 오는 10일 관통로 사거리서 다가교까지 충경로 600m 구간 '차 없는 사람의 거리' 행사 진행

자동차로 가득한 전주시내 중심도로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올해 첫 번째 '차 없는 사람의 거리' 행사가 오는 10일 객사 앞 충경로에서 열린다.

전주시는 오는 10일 관통로 사거리에서 다가교까지 충경로 600m 구간을 자동차 운행을 통제하고 사람과 문화, 생태로 채우는 '차 없는 사람의 거리'로 운영한다.

이 행사는 '도로의 주인은 자동차가 아닌 사람'이라는 김승수 전주시장의 시정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올해는 6월 첫 행사를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총 7차례에 걸쳐 계절별·테마별로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차가 사라진 폭 25m 길이 600m, 1만5,000㎡의 충경로에서는 문화와 생태를 주제로 전주의 거리, 생활문화의 거리, 환경의 거리, 예술의 거리, 청소년 거리 등 테마별 거리가 운영되고, 일일할인 행사와 가족대항 이벤트 등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현충일 추념식 전주시 '제62회 현충일 추념식'이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시의회 의장, 보훈단체장, 유가족 및 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일 오전 10시 전주군경묘지에서 열렸다.이날 추념식에서 참석자들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추모했다.

특히, 시민 100여명이 잔디 조각을 가지고 있다가 동시 신호에 맞춰 차도 위에 100m 가량의 인조잔디 길을 만들고, 그 길을 함께 걷는 '사람의 길, 녹색의 길 퍼포먼스'는 전주가 추구하는 사람이 우선인 생태도시를 뽐낼 퍼포먼스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돗자리 장터와 중고장터, 청소년 프리마켓 등 다양한 시민장터와 불법차량 스티커 차량 등 그림사진전, 페이스페인팅과 BUY전주 홍보행사, 33개동 주민자치위원회 행사 등이 어우러지는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되고, 풍성한 놀거리 행사가 다채롭게 준비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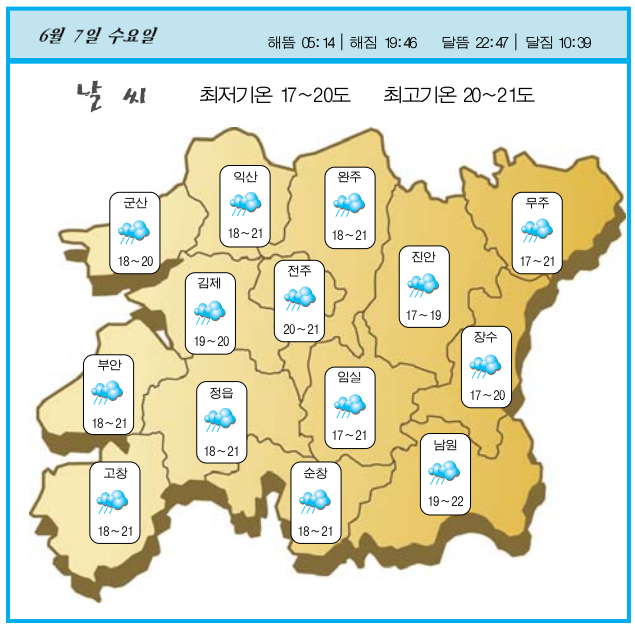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도로 위에서 펼쳐지는 각종 이벤트에 참여하다 지친 시민을 위해 100여개의 알록달록한 파라솔을 투입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고, 영화제작소 등 개방화장실 7곳을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전주시는 이날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충경로 해당 구간에 대해 차량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해당 시간에 운행되는 시내버스 노선은 공구거리와 전주천 동로로 우회하는 방식으로 노선이 임시 조정된다.

이와 함께, 행사 현장에는 공무원과 경찰, 모범운전자 등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200여명의 인력이 배치돼 우회도로 안내 등 차량통제에 따른 운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구거리와 전주천 동로, 시청주변 등의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선다.

시민교통본부 관계자는 "원도심 차도 위를 사람과 문화, 생태로 채우는 행사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주변 특색거리도 알려 충경로를 중심으로 한 원도심에 생기를 불어넣어 전주가 추진하는 구도심 아시아 문화심장터 100만평 프로젝트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시민들에게는 도로의 주인이 차가 아닌 사람이라는 행사의 취지를 각인시켜, 차 없는 거리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재용기자



지방세 ARS 간편 납부 서비스 이달부터 시행

바쁜 직상생활로 인해 은행방문이 어려운 직장인과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은 앞으로 전화 한 통으로 지방세를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집 전화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365일 24시간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ARS 간편 납부 서비스' 시스템을 이달부터 시행하며, ARS 간편 납부 서비스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그동안 시민들은 은행창구와 자동화기기 인터넷 뱅킹, 위택스 등을 이용해 지방세를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었지만, 장년층과 노인층 등 일부 납세자의 경우 회원가입과 공인인증 등 절차가 복잡해 온라인 납부 방식 이용에 부담을 느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세 ARS 간편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전화(1588-2311) 한통으로 지방세 부과현황 조회 및 납부,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등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바쁜 일상생활로 은행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이나, 컴퓨터 활용능력이 부족한 장년층 납세자들이 전화를 이용해 손쉽게 납부 할 수 있어 납세자에게 납부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수 기획조정국장은 "지방세 ARS간편 납부시스템이 구축되면 지방세 납세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 등에 대한 불이익이 줄어들고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재용기자

내일 전북대 코이카 채용설명회 개최

인사담당자 참여 NSC 기반 채용 안내 · 질의응답

전북대학교가 운영하는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이하 센터·센터장 이욱헌)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내일 오후 4시 진수당 가인홀에서 KOICA 2017년도 하반기 전라권 채용설명회를 연다.

이날 채용설명회는 KOICA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에 맞춰 실시되는 것으로 KOICA 인사담당자가 직접 강사로 참여해 KOICA 소개와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채용 안내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KOICA 신입직원 채용은 7월 중순부터 접수가 실시되어 필기, 면접전형을 거쳐 9월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센터 관계자는 "최근 도입된 NCS 기반 채용시험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KOICA 입사희망자들과 국제개발협력 분야 진로희망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OICA는 1991년에 설립된 외교부 산하 대외무상원조 전담기관으로, 연간 약 6천5백억원의 예산으로 성남본부 및 48개 해외사무소에서 프로젝트 사업, 해외봉사단 파견 및 지원, 연수생 초청사업, 민관협력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GNI 대비 0.14%로 국제사회의 약속인 0.7%에는 많이 부족하다. 하지만 2020년까지는 0.20%까지 확대될 계획이고 점진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제개발협력 분야는 우리나라의 학생들이나 기업들에게 일종의 블루오션으로 앞으로 많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해은 기자

통계청, 경제통계통합조사 실시

호남통계청 전주사무소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구조와 분포, 경영활동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14일부터 7월 18일까지 도내 약 1만1,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6년 기준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실시한다.

경제통계 통합조사는 중복조사 최소화로 사업체 응답부담을 경감코자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7종의 경제통계조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조사이다.

사업의 종류, 종사자수, 사업실적 등과 매장면적, 품목별 출하·수출액 등 업종별 특성항목을 조사한다.

조사결과는 관련된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평가, 연구기관.대학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된다.

/안재용기자

한국탄소융합기술원
탄소복합소재 인력양성 성과 · 만족도 'A'

전주시 출연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2년 연속으로 탄소복합소재 분야 최우수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평가 받았다.

기술원은 최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수행기관 14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과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 등급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기술원은 전국 유일의 탄소복합소재 양성기관으로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은 것은 물론, 전년도 운영비의 10% 정도의 예산을 인센티브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기술원은 교육수요와 실무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현직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현장감 있는 교육을 실시해 전국 평균(4.34점)을 웃도는 4.41점의 높은 교육만족도 점수를 획득했다.

최은자 신성장산업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역 탄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 운영해 전주가 탄소산업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용기자